

44. 역사와 영적 투쟁

2012. 10. 2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살피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다니엘서 중에서 11장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방송 강론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다 복잡하게 살피는 일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세상 역사적 전쟁과 영적 투쟁이 함께 예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 투쟁이라는 기본적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애청자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깨닫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0:1,14] 바사 왕 고레스 삼 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14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1. 지난 시간에 영적 대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영적 큰 전쟁은 미가엘과 루시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니엘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미가엘의 신분을 성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세상 나라들의 전쟁과 얽혀서 진행되는 것이 11장의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답: 먼저 다니엘 11:1,2을 읽어봅시다.

[단11:1,2]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2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 계시는 고레스 3년에 본 계시라고 했지요. 가브리엘이 10장 마지막 구절에서 “단10: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뿐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하는 일을 도우는 분이고 가브리엘은 또 다니엘을 직접적으로 도와고 있습니다. 1절에는 가브리엘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돕고 강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 있었지요. 다니엘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가브리엘이 이 사건을 왜 말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을 도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도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장의 내용을 생각하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해집니다. 10장은 영적 투쟁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전체가 영적 투쟁이 모든 예언의 배후에 있

지요. 사자 굴 사건에도 다니엘을 포함하는 사람들이 배후에 루시퍼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그때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했던 분이 가브리엘이고 다리오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고민한 모습이 다 가브리엘의 감화의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며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한 것도 가브리엘이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이것이 10장에서 말한 영적 투쟁의 성격을 미리 귀뜸하는 말입니다. 세상 역사 진행의 배후에는 언제나 영적 투쟁이 개입해 있다는 뜻입니다.

2.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깐,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생각이 나는군요. 그 이야기의 배후에도 희랍 신들의 투쟁이 있었잖아요. 성경의 영적 투쟁 이야기가 매우 닮은꼴인 것 같습니다.

답: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문학평론가가 문학사조를 논하면서 고대에는 신본주의 문학이었는데,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인본주의 문학이 되었고, 20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동물주의 문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활 배후에 신들의 간섭이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저는 10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생각의 배후에는 언제나 영적 실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이런 사실을 선수를 쳐서 사람들에게 영적 실상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유도하지요. 이런 문학작품 배후로 나오는 신들은 이름만 신이지 인간들의 속성과 똑 같은 속정을 지닌 속물들입니다. 그런 신들은 인간의 욕망과 소망을 욕망의 극대화적으로 형상화한 인간 욕망의 모습일 뿐입니다. 성경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세계이지요. 오늘날 그런 이야기들을 다 신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 영향을 좋아하는 신학자들은 창조 사건이나 창세기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을 신화내지는 설화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에 있는 신학교의 80% 정도가 창세기 1~3장 더 길게는 11장까지를 설화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루시퍼는 엄청 성공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주시고 “요14: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언의 성취 여부를 통하여 진위를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희랍 신화를 배경으로 기록한 문학작품과 근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이사야 46:10에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까지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단호히 선언하셨고, 딤후1:18,19에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하여 우리는 면밀하게 연구하고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 과연 성취되었는지 확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른 신앙사상으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3. 예,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괜히 일리아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아닙니다. 잘 하셨습니다. 좋은 의논을 하게 되었잖아요.) 살아계시고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전이나 상상으로 만든 문학작품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가 그리스도와 루시퍼 사이의 투쟁의 전장(戰場)이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실들의 배후에 영적 세력들이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가브리엘은 이런 사실을 다니엘에게 상기시킨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무척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하여 그때 자기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자 굴에서 안전하게 하신 사실을 회상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진행되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2절에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계시를 보았으니까 여기 세 왕에는 고레스가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고레스가 죽은 후에 뒤를 이은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고레스의 뒤를 이는 캄비세스는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그가 애굽 원정에 가 있을 때에 본국에서는 정변이 있었는데,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하였지요. 그는 캄비세스에게 그의 동생 스메르디스가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다는 그럴듯하게 꾸민 정보를 흘렸는데, 캄비세스가 놀라서 비밀히 귀하여 그의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였습니다. 그런 후에 안 사실이 가우마타의 이간질에 속은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우마타는 자기가 스메르디스라고 말하고 왕위에 앉은 것이지요. 그러나 캄비세스가 죽고 2개월 후에 왕실 원로들이 조사한 결과 스메르디스라는 이름으로 왕권을 찬탈한 자가 가우마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그를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족인 다리오를 중심으로 가우마타를 쫓아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찬탈한지 7개월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즉위했습니다. 다리오 1세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사에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라는 예언의 역사적 성취입니다.

4. 그 왕들이 일어나는 과정에 어떤 배후의 영적 투쟁이 있었는지요?

답: 그런 기록이 없으니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틀림없이 영적 투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캄비세스와 가짜 스메르디스가 에스라 4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 재건공사를 중지시킨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라는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 캄비세스와 가우카타가 아하수에로나 아닥사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에스라 4장에 기록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의 뒤를 이은 왕들인 것이 맞지요. 캄비세스와 가우마타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가우마타와 캄비세스 사이에 있었던 사실, 다리오가 가우마타를 축출한 사실 등에도 영적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캄비세스가 그대로 왕위를 유지했다면 다리오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리오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도록 조서를 내려 도운 왕이지요. 배후의 영적 투에는 성전 재건과 관련된 투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5. 왜 악의 세력이 성전재건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답: 성전 또는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복음 상자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공부부를 시작할 때나, 또는 7장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는 그 중심에 성소 재건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려는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연구하면 사단의 정체와 그 멸망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 1장~6장은 세상에 있는 성소에 대한 공방전입니다. 사단은 성소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하게 하여 세상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참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늘 성소를 두고 벌어지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투쟁의 중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전이 재건이 되어서 성전에 설계되어 있는 구원의 섭리를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파괴한 상태로 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6. 아, 사단은 성전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재건하였고, 8장에서 본 대로 하늘 성소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투쟁에서 사단은 패배한 존재가 되었네요.

답: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적 세력들을 총동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을 총동하여 이스라엘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지요. 사단은 결국 하늘성소를 공격합니다. 즉 하늘성소의 기능을 세상의 교회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헐고 타미드를 자신이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졌지요. 8장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11장은 8장의 예언을 좀 더 자세하게 상징적인 표현보다는 실제적인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이지요.

7. 예, 그렇군요. 그 다음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 단11:2절의 남은 부분이지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 다음 왕을 뜻하는데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를 가리킵니다. 아하수에로는 역사책에는 크셀크세스(Xerxes)요 바벨론 식으로는 카샤야르샤(Khashayarsha)인데, 히브리 음으로는 아하수에로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예언한대로 아하수에로는 큰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군요. 이 사람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 사람이 아주 큰 부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에스더 1:1~4을 읽어봅시다.

[예1:1~4]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일백이십칠 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예1:2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3 위에 있는 지 삼 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 왕이 여러 날 곧 일백팔십 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가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오 1세가 헬라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벌였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죽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여 헬라를 침공했습니다.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수에로에게 군대를 보낸 민족이 40개 민족이라고 한다. 인도, 구스, 아라비아,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등에서도 용병이 왔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을 격동시켰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졌다는 것은 돈으로 용병을 많이 고용한 사실을 지적하는 표현이지요. 정말 예언은 정확합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적 사건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8. 목사님, 그러니까 큰 전쟁은 에스더 사건에서도 현저히 나타났네요.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고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고 꾸민 음모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그것을 도리어 복이 되게 한 사건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네요.

답: 옳습니다. 목사님, 잘 보셨습니다. 다니엘 10장이 큰 전쟁에 관한 계시라고 하였고, 미가엘과 사단의 투쟁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11장으로 연결되면서 페르시아의 네 왕을 언급합니다. 다리오 왕 때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투쟁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 때에는 에스더 사건이 터집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지요. 그러나 유대인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계시하실 때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창3:15에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을 먼저 하였지요, 시간적 순서로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성경 기록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승리를 보증한 것이지요. 계시록의 기록들도 그렇습니다. 2,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하여 예언할 때도 일장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서 승리를 보증하셨고, 일곱 인을 계시할 때도 5장에서 승리하신 어린양을 보이셨고, 8장에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도 하늘이 반 시 동안 고요한 사실을 보여주셔서 승리한 결과를 계시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참고 견디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하지요?

9. 예,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1장 3절에서는 페르시아를 건너뛰고 헬라가 등장하네요?

답: 그러네요. 아하수에로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그는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고 자치권을 주고, 다리오 때에 중건한 성전이 60여년을 지나면서 다시 퇴락한 것을 중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으면 이렇게 될 때까지 투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에 페르시아 왕들은 헬라와의 전쟁에 엄청난 국력을 소비하다가 다리오 3세 때에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패전하고 페르시아는 역사에서 그 자리를 헬라에게 넘기게 됩니다. 3절에 나오는 헬라의 능력있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8장에 숫염소에 대한 예언을 사실적인 언어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10. 8장의 숫염소에 대한 예언을 잠깐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을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답: 그렇게 합시다. 8장에 보면 숫염소가 나와서 숫양을 이깁니다. 그런데 숫양은 메데 바사요, 숫염소는 헬라입니다. 그런데 숫염소는 두 눈 사이에 큰 뿔 하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강성할 때에 갑자기 그 뿔이 꺾이고 그만 못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습니다. 11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단11:3,4절을 읽어봅시다.

[단11:3,4]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4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뿔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8장과 대조해보지요.

[단8:8,21,22]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보세요. 표현이 거의 같지요?(예) 헬라왕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가 한창 강할 때에 그가 죽고 그 나라는 네 나라로 분열되고 알렉산더의 후손에게 나라가 돌아가지도 않고 알렉산더가 뜻한 대로 나라가 진행되지도 않는다고 예언합니다. 역사는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사건과 연결되어 일어날 세력이 특별히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 있을 세상 권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우한 사실에도 영적 투쟁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11. 목사님,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작하다가 말겠거든요.

답: 그렇게 하지요.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언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믿게 하리라고 하신 대로 우리에게 확증과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함께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바른 신앙생활로 이기는 삶을 이루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